

4~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姜 仙

(숙명여대 인문학부 강사)

1. 머리말
2. 5胡16國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3. 南北朝시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4. 北魏의 분열과 고구려의 내분
5. 맺음말

1. 머리말

4~6세기 동아시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의 시기였다. 西晉 말기의 혼란을 틈타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대거 남하하여 난립하면서 역사상 5호16국시대가 출현하였고 6세기말 隋에 의해 중국대륙이 통일될 때까지 북중국을 이민족 정권의 지배 아래 놓였었다.

이러한 중국의 정세변화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에 그대로

과급되었다. 중국의 분열은 고구려가 대외팽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주변의 팽창세력과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요동지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고구려와 前燕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北魏에 의해 북중국이 통일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른바 남북조 체제의 성립으로 중국의 정세가 안정되었고 고구려 역시 광개토대왕·장수왕 대를 거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 시기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남북조를 중심으로 柔然과 고구려가 4강 체제를 구축하여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6세기에 들어 4강 체제는 붕괴되었다. 북위가 동서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北周와 北齊로 교체되었고 북방에서는 유연 대신 突厥이 초원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세력이 약화된 반면에 신라가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본고에서는 4~6세기 동안 중국내 정치세력들 중 고구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정권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알아보고 그에 맞춰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5胡16國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1) 고구려와 前燕의 관계

3세기 말 8왕의 난을 시작으로 4세기 초 永嘉 연간에 일어난 지방세력의 반란으로 西晉이 혼란에 빠지자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대거 중국 대륙에 진출하여 난립하면서 역사상 5호16국시대가 출현하였다. 중국의 분열은 고구려가 세력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대외여건을 조성하였다.

미천왕은 먼저 중국의 군현세력을 몰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302년 현도군에 대한 침입을 시작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 내에 남아있던 중국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요동지역을 자주 공격하여 당시 요서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선비慕容部를 압박하였다. 서진 왕실이 혼란에 빠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자 모용부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팽창 세에 밀려 그 세력이 위축되었다.

모용부의 지도자慕容廆는 漢人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모용외는 진 왕실에 대해 勤王 정책을 취함으로써 대규모의 한인 유민을 받아들여 정치에 참여시켰고 한인들 역시 모용 정권이 胡族 정권이라고는 하나 서진 왕실을 멸망시킨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의 마지막 귀착지로 모용 정권을 택하였다.¹⁾ 또한 모용외는 재위 기간 동안 農桑을 장려하여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요동 일대는 원래 땅은 넓고 인구는 적어 단지 1만여 호가 있었지만 4세기 초에 이르러 인구가 10배 내외로 증가하였다.²⁾

모용부 세력의 성장은 선비족 내의 주도권을 놓고 宇文部 및 段部와 갈등을 일으켰다. 또한 東晉의 평주 자사 崔攄도 모용외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최비는 자신의 통치지역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모용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최비는 우문부와 단부 그리고 고구려를 끌어들이어 反모용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모용부를 공격해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³⁾ 319년 연합세력은 모용외를 치기 위해 棘城으로 진격했지만 모용외는 우문부를 유인해 연합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쟁을 주도했던 최비는 고구려로 도망쳤다.

1)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1988, 37-40쪽.

2) 申友良, 『中國北方民族及其政權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8, 89쪽.

3) 『資治通鑑』卷91, 「晉紀」13, 太興2年12月「平州刺史崔攄自以中州人望鎮遼東而士人多歸慕容廆心不平數遣使招之皆不至意廆拘留之內陰說高句麗段氏宇文氏使共攻之約滅廆分其地」.

이 사건은 모용외를 자극해 고구려를 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 고구려는 여러 차례 모용외 세력과 충돌하였는데 고구려 측의 요구로 和盟이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날로 성장하는 모용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취했다. 이후 고구려는 後趙에 사신을 보냈는데,⁴⁾ 이것은 후조와의 연대를 모색해 모용외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모용부 내에서는 모용외가 죽고 慕容皝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동생인 慕容仁이 반란을 일으켜 내부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요동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 일부 세력이 모용황의 휘하에서 이탈하고 우문부와 단부가 모두 모용인을 지지하고 나서자⁵⁾ 모용황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드디어 336년 모용황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모용인의 반란세력을 진압하는데 성공하고 이듬해 燕王에 즉위함으로써 前燕이 탄생하였다.

앞서 모용인의 반란세력에 가담하였다가 싸움에 패배하자 修壽와 郭充이 고구려로 도망쳐 왔는데, 고구려가 이들을 받아들인 것은 적대세력인 모용부의 내부를 와해시키며 反모용황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공세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 나중에 후조가 전연을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에 곡식을 운반해 놓고 전쟁을 준비할 때 고구려가 후조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⁷⁾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후조가 전쟁에 지고, 이 때문에 고구려는 전연의 침입을 받기도 했지만 전연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반모용황 세력과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동지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고구려와 전연이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국제적으로 유리한

4)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21年 12月條.

5) 『晉書』卷109, 「載記」9, 慕容皝傳.

6) 손영중,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백산자료원 영인), 1990, 168쪽.

7) 『資治通鑑』卷96, 「晉紀」18, 咸康4年5月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연을 견제하는 대외정책을 선택했고 반모용황 세력의 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전연은 외교정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의 예상대로 전연은 342년 대대적인 침입을 감행하였다.

10월 겨울 연왕(모용)황은 龍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입위 장군(모용)한이 황에게 ‘먼저 고구려를 빼앗고 다음에 우문씨를 멸해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었다.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으며 남쪽 길은 험하고 좁다. 따라서 사람들은 항상 북쪽 길을 선택하였다. 한이 “적국은 일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대군이 반드시 북쪽 길로 오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쪽 길을 중시하고 남쪽 길을 가볍게 취급할 것입니다. 왕께서 응당 정예부대를 이끌고 남쪽 길로 가서 불의의 공격을 하면 북쪽 도성은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소부대를 북쪽 길로 보내면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그들의 심장부가 이미 무너졌으니 사지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황은 이 말을 따랐다.⁸⁾

위의 기사는 전연이 고구려를 침입하면서 전쟁의 목적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다. 전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원에 진출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후방의 위협 세력인 고구려와 우문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전연이 고구려를 침입한 것은 중원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와 우문부를 공격해 양자의 연대를 차단함으로써 전연을 둘러싸고 형성된 反전연 세력도 와해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전연은 중원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고구려에 대한 침입을 계획했기 때문에 전략도 치밀하게 세웠다. 고구려의 지형적 특성과 그에 따른 방어책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모용한의 전략은 적중했다.

8)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年 冬10月條

모용한의 예상대로 북쪽 길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고구려는 남쪽 길로 쳐들어온 전연의 정예부대에 밀려 수도인 환도성을 빼앗겼다. 그러나 북쪽 길에서 패배한 전연은 고구려의 반격을 의식하여 미천왕의 시신과 고국원왕의 어머니 그리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환도성을 파괴한 후 돌아갔다. 전쟁은 고구려의 패배로 끝났고 전연은 잡아간 왕의 어머니를 인질로 고구려를 압박하였다.

전연은 후방의 안전이 확보되자 본격적으로 중원진출을 꾀하였다. 마침 후조에 내란이 일어나자 이 틈을 타서 幽州의 치소인 薊城(북경 동남지역)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352년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전연왕 慕容儁은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이것은 전연이 남진정책을 성사시키고 중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된다.⁹⁾ 이로써 전연은 본격적으로 중원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도 왕국에서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날로 세력이 강성해져 가는 전연을 상대로 고구려는 왕의 어머니 송환을 위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전연이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가 다시 전연에 조공을 바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의 책봉관계는 인질이 된 왕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¹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전연과의 관계에서 고전을 겪고 있던 사이 전연은 제국의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연은 계로 수도를 옮긴데 이어 苜魏를 쳐서 鄴城(하북성 臨漳縣 서남)을 함락시키고 다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시기 황하 이남에서 淮漢 이북에 이르는 북중국은 前秦의 영토를 제외하고 전연의 지배 하에 놓였다.¹¹⁾ 이후 전연은 동진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남쪽으로 더욱 세력을 확장하였고 동진을 압박하여 365년에는 유서 깊

9) 지배선, 『中世東北亞中世史』, 일조각, 1997, 128 쪽

10)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 교섭의 성격」, 『東洋學』 11, 1981, 155쪽.

11) 申友良, 앞의 책, 90쪽.

은 도시 洛陽까지 함락시켰다. 이제 전연은 342년 고구려를 침입할 때 밝혔던 것처럼 중원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선 것 같았다.

그러나 모용준이 사망한 후 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서 시작된 통치집단의 권력투쟁과 지배집단의 부패로 인한 국고의 고갈은 급격히 전연의 국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와중에 동진의 침입을 받게 된 전연은 전진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전후 처리문제에 갈등이 생겨 결국 370년 전진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한편 고구려는 고국원왕의 어머니가 송환된 후 전연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남부 국경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고구려의 위기를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백제의 팽창은 전쟁을 야기하였다. 이전 시기 낙랑군과 대방군이 존재했을 때는 이들 중국 군현세력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으나 두 군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자 양국은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 입장에서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은 고구려 세력의 확대에 따른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력이 성장 일로에 있던 백제는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더군다나 전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고구려의 상황은 백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은 고구려가 먼저 시작하였지만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승리로 끝났다.

4세기 초 동아시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변혁의 시대였다. 漢族 왕조의 멸망과 이민족 정권의 난립이라는 정세의 변화는 주변 정치세력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분열 상황으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는 중국 내에 혼란을 초래했지만 주변국가들에게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이 혼란에 빠져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자 고구려는 한반도 내에 남아있던 중국 군현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대외팽창은 이웃한 전연과 충돌을 야기했다. 전연 역시 중원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세력확장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팽창세력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양자의 싸움에서 고구려가 패함으로써 고구려의 대외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백제의 침입까지 더해져 고구려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 중국의 분열이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고구려가 대외 팽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전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대외팽창이 좌절된 시기이기도 했다.

(2) 고구려와 後燕·北燕의 관계

전진에 의해 전연이 멸망하고 북중국을 다시 전진에 의해 통일되었다. 당시 전진은 남쪽의 동진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구려는 백제와 불안한 관계에 있었다. 전진은 중원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동진과 일대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세력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전연 및 백제와의 전쟁에서 계속된 패배로 큰 타격을 받고 팽창위주의 대외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와 전진 사이에 시종일관 유지된 우호관계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되었을 것이다. 즉 고구려와 전진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다.¹²⁾

먼저 고구려는 전쟁의 패배에 따른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소수림왕은 일련의 체제정비를 통해 고구려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12) 이 시기 고구려와 전진의 관계를 조공·책봉 관계의 변형된 형태로 보고, 양국이 冊封號를 수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고구려가 황제국이라는 전진의 위상을 받아들이고 전진도 위무책을 펴면서 고구려의 세력권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65-66쪽).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때 고구려가 국가체제의 정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 첫째 국제정세가 고구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 동안 외부로부터 오던 강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구려는 전연 멸망시 망명해 온 전연의 太傅 慕容評을 전진의 符堅에게 압송함으로써 호의를 표시하였고, 전진은 우호의 표시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또한 백제도 근초고왕이 죽은 뒤로는 상대적으로 약화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외부의 압력에서 해방되자 고구려는 오로지 국가체제의 정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이 때 고구려는 체제정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개혁사업은 다름 아닌 중국식 법 제도와 정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에 망명해 온 漢人 관료의 힘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전진이 먼저 80여 만명의 대군을 동원해 동진을 공격했으나 淝水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전진의 국력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그 틈을 타서 여러 정치세력이 자립하여 북중국은 다시 분열되었다. 먼저 선비족 모용부에 의해 後燕·西燕·南燕이 차례대로 건국되었는데, 후연은 나중에 馮跋에 의해 北燕으로 교체되었다. 이 외에 後秦, 西秦, 大夏, 南涼, 後涼, 西涼, 北涼 등 여러 정권이 난립했다. 이 중 서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민족들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었다.

그런데 난립한 여러 정권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농업이나 목축 등 경제기반이 파괴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거기에 지배층들의 부패가 더해져 할거정권들은 쇠약해져 갔다.¹⁴⁾

13) 이기백·이기동 공저, 『한국사강좌』 I (고대편), 일조각, 1996, 128쪽. 이 시기 고구려에 망명한 한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공석구,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14) 王仲榮, 『魏晉南北朝史』 上, 上海人民出版社, 1998, 290쪽.

이 시기 燕王을 자칭한 慕容垂는 후연을 건국하여 386년 中山(하북성 定縣)에 도읍을 정하고 황제의 위에 올랐다. 후연의 세력범위는 기본적으로 전연이 원래 점유했던 영토에 미쳤다. 후연은 건국 초기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 사방의 유민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다.¹⁵⁾ 그러나 모용수가 사망하고 그 아들인 慕容寶가 즉위하던 396년 北魏의 공격을 받아 수도인 中산이 포위되고 싸움에 대패하여 모용보는 용성(요령성 조양)으로 쫓겨 갔다. 이후 후연은 계속되는 내분으로 왕권이 불안해지고 慕容盛과 慕容熙의 실정으로 민심을 잃어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 결국 후연은 407년 馮跋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 모용희가 피살되고 모용보의 양자였던 高雲이 北燕王에 추대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다.

중국 대륙이 이처럼 혼란에 빠져 여러 정치세력이 난립하자 소수림왕대에 일련의 체제 정비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고구려는 다시 대외팽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고국양왕은 요동과 현도를 두고 후연과 공방전을 벌였으며 백제와도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고구려는 전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고국양왕 말년에 신라와 우호관계가 성립되어 신라가 불모를 보내오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점차 고구려의 對백제전략을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켰다.¹⁶⁾ 즉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백제는 한반도에서 고립되었고 이것은 고구려에게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외상황을 배경으로 광개토대왕 대에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한 해부터 백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전 시기 전연과 후연 등 모용부 정권과 충돌하여 고구려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기회로 고구려에 침입하여 타격을 입힌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 즉 고구려

15) 『十六國春秋輯補』卷43, 『後燕錄』.

16) 공석구, 「고구려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4(고대국가의 대외관계),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71쪽.

가 세력확장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백제였던 것이다. 백제가 계속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위협하는 한 고구려의 대외팽창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제압하여 남부 국경지역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후연을 공략할 전략을 세웠던 것 같다. 광개토대왕은 재위 시 모두 4차례에 걸쳐 백제를 공격해 큰 전과를 올렸으며 남쪽 국경지역에 7개의 성을 쌓아 백제의 침입에도 철저히 대비하였다.¹⁷⁾ 이로써 백제를 제압하는데 성공하자 광개토대왕은 곧이어 후연에 대한 공략을 개시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와 후연 간에는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팽창세에 후연이 밀리는 형세였다. 광개토대왕은 401년 후연의 宿軍城을 공격함으로써 요서지역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숙군성은 후연 시기 요서지역의 重鎮으로서 지금의 요령성 北鎮縣에 비정된다.¹⁸⁾ 이어 403년에도 고구려는 후연의 燕郡에 쳐들어 갔는데,¹⁹⁾ 연군은 요령성 의현 남쪽 七里河 일대에 비정 되고 있다.²⁰⁾ 고구려는 후연의 수도가 있던 용성 부근의 요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통해 후연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후연은 서쪽의 북위와 동쪽의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리며 세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왕실의 실정까지 더해져 결국 정변이 일어나 왕실이 교체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풍발에 의해 북연의 황제로 추대된 고운은 원래 고구려계 인물이었다. 고운의 할아버지가 전연 모용황의 고구려 침입시 전연으로 잡혀간 후 대대로 연의 신하가 되었다.²¹⁾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고구려와 북연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수립되었는데, 북연에서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 고운이 살해되고 결국 馮氏 일가가 왕실을 차지하여 풍발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였다.

17)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8)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 上海辭書出版社, 1996, 838쪽.

19) 『晉書』卷124, 「載記」24, 慕容熙.

20) 孫進己, 馮永謙 主編, 『東北歷史地理』,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204쪽.

21) 『資治通鑑』卷109, 「晉紀」31, 隆安元年 4月條

이제까지 고구려와 전연·후연 등 모용 정권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은 주로 요동지역이었는데 5세기 초반에 이르러 요동지역이 완전히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요동지역에 대한 안정적 확보는 고구려가 서북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광개토대왕 대의 활발한 정복전쟁에 힘입어 고구려의 영토는 사방으로 확대되었다. 광개토대왕이 사망한 후 세워진 <광개토대왕비>에는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지역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이 생전에 정복하여 확장한 고구려의 영토는 오늘날 내몽골 시라무렌하 유역부터 두만강 하류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다.²²⁾ 또한 이 시기 고구려는 한반도 내의 분쟁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비문의 내용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쳐들어온 倭를 몰아내기 위해 400년 원정을 감행해 신라를 구원하고 왜를 추격하다 가야까지 쳐서 전기 가야연맹체를 해체시켰다.

한편 중국대륙에서는 북위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져 주변국가들을 위협하였다. 북위는 이전 시기 전연이나 전진처럼 북중국의 통일을 목표로 주변의 군소 세력들을 통합해 나갔다. 이처럼 북위가 북중국의 강자로 부상하자 북위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도 서로 연대를 모색하며 국제적으로 반복위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특히 북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 북방의 柔然과 북연 사이에 國婚이 성사된 일²³⁾이나 북연이 夏와 화맹을 맺은 것²⁴⁾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북위는 주변 세력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반복위 세력의 연대를 끊어 국제적으로 북위가 고립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북중국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유연은 북위가 가장 경계하는 勢力

22) 천관우, 「광개토왕의 정복활동」,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48-55쪽.

23) 『資治通鑑』 卷116, 「晉紀」 38, 安皇帝辛 義熙 7年.

24) 『資治通鑑』 卷116, 「晉紀」 38, 安皇帝辛 義熙 10年.

이었다. 때문에 북위는 유연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북연에 대해 점차 압박을 강화되었다. 결국 북위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북연왕 풍홍은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하게 되고 436년 북연은 멸망하였다.

전진의 약화에 따른 북중국의 분열은 다시 여러 정치세력이 난립하는 형세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의 대외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했다. 이 시기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연은 국가규모나 세력면에서 전연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되었다. 고구려 역시 일련의 체제정비로 내실을 다지고 국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정세변화가 대외활동을 위축시키지 못했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북중국의 분열로 주변 정치세력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본격적인 대외팽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3. 南北朝시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1) 고구려의 동몽고 진출

광개토대왕 대에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한 것은 고구려가 동몽고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고구려가 동몽고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契丹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

거란은 庫莫奚와 함께 선비 우문부의 후예인데,²⁵⁾ 고구려가 거란과 처음 접촉한 것은 소수림왕 8년(378), 거란이 고구려의 국경을 침범한 때였다. 당시 거란의 거주지는 내몽골 시라무렌 이남과 조양 이북 사이였다.²⁶⁾

25) 『魏書』卷100, 「列傳」88, 契丹國, 庫莫奚國.

26) 馮繼欽·孟古托力·黃鳳岐 共著, 『契丹族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4, 2쪽.

고구려가 거란에 대해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한 것은 광개토대왕이 즉위 하면서부터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대왕은 즉위한 해에 거란을 공략하였는데, <광개토대왕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永樂 5년조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이 穉麗를 토벌하였다고 하는데 이 패려가 바로 거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패려의 실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지만 거란 8부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광개토대왕은 소와 말과 양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노획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바로 말이다.

광개토대왕은 생전에 많은 정복전쟁을 수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기마병이 출전했다. 기마병단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질 좋은 말의 확보였다. 고구려는 거란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거란에 대한 공략은 고구려의 대외 정복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⁷⁾ 즉 광개토대왕은 거란 공략을 통해 고구려가 동몽고 지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정복전쟁에 필요한 말을 확보했다. 또한 거란은 나중에 고구려의 附庸兵이 되어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다.²⁸⁾

한편 북중국에서는 440년에 북위가 北涼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완수했다. 이로써 중국은 5호 16국의 분열기를 마감하고 남조의 宋과 북조의 북위가 대치하는 형국을 이루어 남북조 시대가 열렸다. 중국의 정세변화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었다.

5호 16국 시대가 중국의 분열과 혼란을 틈타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던 시대였다면 남북조 시대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기초한 견제와 연대가 새로운 동아시아의 외교전략이 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이 된 것은 남북조를 중심축으로 하여 북방의 유연과 동방의 고구려가 힘의 균형

27) 拙稿, 『북방민족사에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고구려연구』 18(고구려 정체성), (사)고구려 연구회, 2004, 151쪽.

28) 이에 대해서는 拙稿, 『고구려와 북방민족의 관계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3-104쪽 참고.

을 이루어 형성된 동아시아 4강 체제의 구축이었다.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북위였다. 북위는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위와의 관계는 고구려가 대외정책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다.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위를 적절히 견제하는 한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앞서 고구려는 서부 국경이 불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한반도 상황에도 파급되어 백제의 침입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때문에 고구려는 북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반도의 삼국 관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고구려는 남북조와 모두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고구려는 북위에 대해 당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조공관계를 유지하지만, 조공을 국가 간 臣屬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북위에서도 이러한 고구려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동북방에서 고구려에게만 冊封號를 주었는데 이는 곧 고구려의 세력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²⁹⁾ 즉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남북조와 인근 국가들간의 교섭 형태였던 조공·책봉 관계는 명목상 양자간의 상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으나 실제 국제관계를 움직여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표면상 내세우는 논리가 구현되지 못하였다. 곧 名과 實의 현격한 괴리를 보였다.³⁰⁾

고구려와 남북조 사이에 행해진 조공과 책봉을 매개로 한 교섭형태는 그 시대가 지닌 특수한 국제환경이란 측면에서 살펴볼 때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구려는 남북조와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 이는 당시 남조와 북조가 서로 적대시하며 대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이용해 국익을 증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조와 북조는 국제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29) 임기환, 『南北朝期 韓中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 고대사학회, 2002, 41쪽.

30)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39-340 쪽

높이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세력들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남북조의 대립을 이용해 등거리 외교를 실시함으로써 남조와 북조 모두 고구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고구려는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이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남북조의 대립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북위와 원만한 관계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북위를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479년 고구려는 유연과 공모하여 地豆于를 나눠 갖기로 하였는데,³¹⁾ 이는 북위와 지두우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두우는 대홍안령 남변 일대에 위치한 유목부족으로서 유연과 고구려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생존을 위해 북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³²⁾ 즉 고구려가 유연과 공모해 지두우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은 북위가 서북지역 유목민 집단과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북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구려에게 적대적이었던 勿吉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를 치겠다며 그 가부를 묻는 일이 있었는데,³³⁾ 이 물길 사신이 북위에 갈 때 거치는 곳이 바로 지두우였다. 물길의 적대적 행위에 고구려는 지두우 공략이라는 방법으로 적극 저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유연이 가담했던 것은 유연 역시 북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위를 견제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유연은 烏桓이나 선비와 마찬가지로 고대 東胡 민족 가운데 속하는데 선

31) 『魏書』卷100, 「列傳」88, 契丹國.

32) 박원길, 「고구려와 유연·돌궐의 관계」, 『고구려연구』14(고구려의 국제관계), (사)고구려 연구회, 2002, 14 쪽

33) 『魏書』卷100, 「列傳」88, 勿吉國.

비와 同源이다. 문헌에 유연을 '鮮卑別種'나 '塞外雜胡'라고 한 것은 中原人의 유연에 대한 泛稱에 불과하다. 유연은 일찍부터 북위를 견제하는 정책을 썼다. 吐谷渾(청해 지구)과 益州(사천)를 경유하여 建康(남경)에 이르는 길을 따라 남조의 宋·齊·梁과 通好하였는데, 이는 남조 정권과 연계해 북위를 고립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유연은 유목경제에 종사하여 봄과 여름에는 漠北에서 흩어져 방목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漠南으로 내려와 방목하였는데 양식과 기타 재물의 수요에 따라 약탈도 병행했다. 때문에 유연과 북위 사이에는 전쟁이 일상화되었다. 북위 조정에서는 유연의 약탈과 남하를 막기 위해 동쪽의 赤城(하북 적성)에서 시작해 五原(내몽골 包頭 서부)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6鎮을 설치했다.³⁴⁾ 또 몇 차례 대규모의 원정을 단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유연과 북위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던 고구려는 서북쪽에서 고구려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유연을 끌어들이며 북위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남북조 시기 동아시아 4강 체제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전제가 된 국제질서였다. 이 같은 국제 역학관계는 현상유지를 최상의 조건으로 하였다. 어느 한쪽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주변에 영향을 주어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했다. 남북조 정권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고구려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남북조의 대립 상황을 이용해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이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고구려가 유연과 지두우 분할을 모의한 것은 동몽고 지역이 북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이것은 또한 고구려가 현상유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익과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한 축으로서, 천하가

34) 邱久榮, 『柔然』, 『中國古代民族志』, 中華書局, 2004, 34-36 쪽.

몇 개의 병렬적인 지역권으로 구성되었는데, 고구려가 그 중 하나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天下觀은 고구려의 대외정책 방향과도 연결되었다. 즉 중국의 남북조와 몽고고원의 유목민 국가와는 병존책을 추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³⁵⁾ 고구려가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을 한반도에서 백제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여 실현하고자 했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평양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남진정책이라고 하겠다.

(2) 고구려의 남진정책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4강 체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자 고구려의 대외정책은 서북방에서의 현상유지와 적극적인 남진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전 시기 고구려가 서부 국경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침입하여 괴롭히던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공략은 광개토대왕 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장수왕대에 들어와 對백제 전략이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역으로의 세력확대라는 성격을 띠면서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서부국경에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반도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여 삼국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평양천도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 사회는 그 발전방향이 자기사회의 성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多元的 지배질서를 지지하는 족장세력들을 왕권 아래 통합

35) 노태돈, 「5세기 고구려인의 天下觀」, 『한국사 시민강좌』3, 일조각, 1988, 86쪽.

하면서 왕권강화와 一元的·中央集權的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또 이러한 방향은 소수림왕의 일련의 시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어 이 시기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³⁶⁾ 즉 소수림왕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체제정비를 통해 고구려는 대내외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또 개혁정책을 주도한 왕 중심의 전제권력이 강화되어 중앙집권체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평양천도의 배경이나 이유가 어떠한 간에 고구려의 수도가 협착한 산골짜기의 野營 도시로부터 넓은 평야에 자리잡은 정치도시·경제도시·문화도시로 발전한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천도는 국가의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고구려의 경우는 그것이 뚜렷하였다고 생각된다. 고구려가 정치·경제 등 가장 완비된 체도를 갖추면서 전제왕권을 구축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국왕 자신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생각되는 평양천도로 종래 국내성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뿌리 깊게 잔존하였던 5부의 세력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왕권강화에 이바지하였을 것이다.³⁷⁾

특히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농경지대와 인구의 밀집지대 확보 그리고 국내성 중심 지배체제의 한계와 그로 인한 평양경영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남부로의 진출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³⁸⁾

그런데 북한학계에서는 평양천도를 동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삼국통일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평양은 삼국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36) 서영대,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왕권 및 중앙집권 지배체제의 강화과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2, 1981, 113쪽

37) 이기백·이기동 공저, 앞의 책, 171쪽.

38) 박성봉, 「광개토태왕기 고구려 남진의 성격」, 『한국사연구』 27, 한국사연구회, 1979 : 고구려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고구려의 남하는 서쪽으로의 진출이 어려울 때에 취해진 돌파구로서 고구려의 발전방향은 서남대륙 쪽에 있는데 대륙방면으로의 진출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 血路로서 택한 것이 남진책이었다는 견해도 있다(末松保和, 「高句麗攻守の形勢」, 『靑丘學叢』 5, 1931, 149-150쪽).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대성산이라는 방어수단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라고 하였다. 또 평양은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중앙집권적 통치에 있어서 교통로를 통해 지방에 통치력을 침투시키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은 대동강 하류에 펼쳐진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수도에서의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재령강과 서해를 끼고 있어서 도시입지적 및 경제활동으로도 유리한 곳이라고 하였다. 문화적으로도 평양은 고조선 때부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지대여서 고구려가 평양천도를 한 이후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천이 되었다고 하였다.³⁹⁾ 즉 고구려는 동족의식에 바탕을 두고 삼국통일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요충지인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주장이다.

북한학계의 주장에서 수도로서 평양지역이 지닌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지적은 옳다고 생각되나 과연 천도가 삼국통일을 목표로 단행된 것인지는 수궁하기 어렵다. 그리고 삼국간에 동족의식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도 단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 같다. 북한학계의 이러한 주장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고구려 중심으로 인식하여 唐과 제휴한 신라의 통일전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북한학계는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행위를 반민족적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고구려가 평양천도를 단행한 5세기 당시 백제와 신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려면 고구려의 對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5세기 당시 고구려는 4강 체제에 의한 힘의 균형이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패자로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

3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149-150쪽 및 채희국, 『고구려 역사 연구』-평양천도와 고구려의 강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백산자료원 영인, 1999), 104-108쪽.

축하고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중심이 되는 천하관이 구현되려면 중심인 고구려와 外臣으로서 고구려를 섬기는 나라가 존재해야 했다. 즉 종주국으로서의 고구려와 종속국으로서의 외신이 갖춰져야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평양천도를 계기로 백제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이들을 외신으로 삼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에 의하면 ‘百殘(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屬民으로 조공을 받쳐왔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5세기 당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조공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고구려가 중심이 된 동북아 세력권에서 고구려를 섬기는 외신의 나라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주국으로서의 고구려와 종속국으로서의 백제 및 신라라는 구도 속에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구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고구려가 삼국통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평양천도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어쨌든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고 이 때문에 양국 간에는 동맹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신라보다는 백제 쪽이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위기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다. 아마도 이전 시기 백제가 고구려와 빈번히 충돌하며 고구려를 자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반격이라는 측면에서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對中외교를 강화하여 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472년 백제는 북위 조정에 올린 表에서 ‘고구려가 겉으로는 藩屏의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흉악한 짐승의 행위를 품고 있고, 남조 및 유연과 맹약하여 王略 짓밟으려 한다’⁴⁰⁾며 고구려를 비난하였다. 백제는 고구려가 북위와 朝冊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북위 주변세력들과 연계해 북위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북위로부터 군사원조를 받고자 했다.

40) 『魏書』卷100, 「列傳」88, 百濟.

당시 북위는 남조의 송 및 북방의 유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를 꺼렸던 것 같다. 또 북위가 백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고구려와 맹약한 송 및 유연도 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4강 체제의 힘의 균형을 깨어 궁극적으로 북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결국 북위는 백제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은 오히려 고구려를 자극해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산(한성)을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산(한성)을 점령하고 개로왕을 살해하였다. 이로써 한강유역이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졸지에 수도를 빼앗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웅진천도 후 백제는 불안한 왕권을 틈타 귀족들이 득세하여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가 479년 동성왕이 즉위하여 왕권강화책을 추구하면서 점차 안정되어 갔다. 앞서 『魏書』의 기록을 들어 물길 사신이 북위 조정에 가서 백제와 힘을 합해 고구려를 치려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었는데, 물길 사신이 북위에 간 시기는 太和(477~499)초였다. 아마도 동성왕이 즉위한 후 백제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던 중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1979년 충주에서 발견된 ‘中原高句麗碑’는 건립연대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영토가 그 지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알려 주는 유물이다. 고구려는 평양천도에 이어 백제의 한산(한성) 점령을 통해 남진정책에 필요한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남진정책을 통한 고구려의 팽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 고구려는 동북아 국제정세가 4강 체제가 중심이 된 세력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對중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펼쳐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세력관도를 확장할 수 있었다.

4. 北魏의 분열과 고구려의 내분

6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의 4강 체제는 북위의 분열과 유연 세력의 약화 등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지배층의 권력쟁탈전으로 인한 내분이 일어나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었다.

북위에서는 귀족들의 부패와 내분으로 지배질서가 문란해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폭동까지 일어나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런 와중에 523년 懷荒鎮 주민들의 봉기를 시작으로 6鎮 전역에 걸쳐 반란이 일어나 反북위의 기치를 내걸고 북위의 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이 때문에 북위는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고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534년 선비화한 漢人 高歡은 권력을 장악한 후 孝靜帝를 세우고 鄴城에 수도를 정하였는데, 이로써 東魏가 탄생했다. 이 동위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고훈의 아들 高洋이 550년 정권을 찬탈하여 北齊를 세웠다. 그 후 북제는 557년 북주에 의해 멸망하였다.

한편 고훈에게 쫓겨 장안으로 도망갔던 북위의 孝武帝는 宇文泰에게 독살당하고, 535년 정권을 장악한 우문태에 의해 文帝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西魏이다. 서위 정권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우문태의 아들 宇文覺이 정권을 찬탈하여 北周를 건국했다.

이처럼 북중국에서 북위가 동서로 갈라지고 다시 북제와 북주로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고구려 사회도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안원왕의 즉위를 둘러싸고 외척들 사이에 권력쟁탈전이 벌어져 細群과 麤群이 궁문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패한 세군측 희생자가 2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안원왕이 희생되고 추군측의 추대로 8살의 나이 어린 양원왕이 즉위하였다.⁴¹⁾

6세기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전제왕권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었다. 장수왕대 성공적인 대외 정복사업에 힘입어 귀족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전통적인 5부 중심의 귀족사회에는 분해작용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고구려는 전제왕권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귀족세력의 재편성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제왕권은 그 후 귀족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⁴²⁾

5세기 고구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이 장기간 평화를 누리며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내부적으로 지배층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모순을 야기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대외문제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고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은 국가의 멸망을 운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⁴³⁾

한편 고구려의 불안한 내부 사정은 고구려에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백제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백제는 신라와 연합군을 결성해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신라가 원래 백제 영토였던 한강유역을 차지하자 신라와 백제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양국 사이의 동맹관계는 깨지게 되었다.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일어난 삼국간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삼국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고구려 대 나제동맹에서 삼국 각각의 상쟁⁴⁴⁾이라는 새로운 상황으로의 변화였다. 이제 고구려의 일방적인 팽창이 아니라 이에 맞서는 신라의 성장이었다. <진흥왕 순수비>는 당시 신라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고구려로서는 한반도 내에서 세력이 위축되었음을 뜻한

41) 이흥직,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한국고대사의 연구』, 1971.

42) 이기백·이기동 공저, 앞의 책, 174쪽.

43) 『三國史記』卷44, 『列傳』4, 居柒夫.

44) 노태돈, 「고구려의 漢水 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한국사연구회, 1976, 56쪽.

다. 이전 시기 고구려의 대 백제·신라 정책이 공세적이었다면 이제는 수세의 입장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위축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북위가 분열되고 고구려가 내분을 겪으며 한반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시기 북방의 유목민족 사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북방의 강자였던 유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突厥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돌궐은 546년 철륵을 격파하면서 유연의 휘하에서 벗어나 급속히 세력이 성장하였다. 돌궐은 원래 유연에 복속되어 대대로 야철업에 종사하였다.⁴⁵⁾ 돌궐에 대해 사서에서는 ‘匈奴別種’ 혹은 ‘平涼雜胡’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돌궐은 고대에 흉노 북쪽에 거주했던 丁零의 한 갈래로, 高車·鐵勒과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 돌궐이 유연을 대신해 북방의 강자로 부상하자 당시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북제와 북주는 돌궐과 화친을 맺고자 했다.⁴⁶⁾ 이 같은 북제와 북주의 갈등과 돌궐을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여려는 상호 경쟁은 오히려 돌궐이 주위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으로 조성했다.

돌궐 세력의 부상은 고구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였던 것 같다. 547년 고구려는 백암성을 쌓고 신성을 수리하여⁴⁷⁾ 서북 국경지대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나중에 돌궐이 바로 이 신성과 백암성에 쳐들어왔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가 서북 국경지대에 대한 방비를 강화한 것은 돌궐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바로 전해인 546년 돌궐이 철륵을 격파하고 유연의 휘하에서 벗어나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하자 그 여파가 고구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취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돌궐이 고구려를 침입한 것은 양원왕 7년인 551년의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해에 돌궐은 고구려를 침입하여 신성을 포위 공격하다 실패하

45) 『隋書』卷84, 「列傳」49, 北狄 突厥.

46) 邱久榮, 「突厥族」, 『中國古代民族志』, 中華書局, 2004, 114-115 쪽.

47)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3年 7月.

자 다시 백암성을 공격하였다.⁴⁸⁾ 이 사건은 돌궐과 고구려가 처음 접촉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시기를 두고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돌궐이 懷荒鎮과 沃野鎮에서 싸워 유연을 격파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552년이므로 그 전인 551년에 고구려에 쳐들어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돌궐과 유연의 격전지였던 회황진과 옥야진은 과거 북위 시기 유연의 남침을 막기 위해 설치한 6진에 속한 군사요충지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세기 초반 6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은 북위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대사건이었다. 그 후 이 6진 지역은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 동위와 서위 그리고 북제와 북주를 거치는 동안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때문에 기동력이 우수한 유목민 출신의 돌궐이 이 지역을 통과해 고구려의 서북국경 지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5세기와 비교할 때 크게 변하였다. 북위의 분열과 고구려의 내분 그리고 유연을 대신한 돌궐의 부상으로 이전 시기 4강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파급되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불안한 틈을 타서 나제연합군은 한강유역을 탈환했고, 최후로 이 지역을 차지한 신라의 성장은 한반도내 세력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신라의 팽창에 대응하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했다. 아울러 유연을 대신해 북방 초원지대의 강자로 부상한 돌궐이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까지 침입함으로써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동북아의 정세불안은 6세기 후반 隋에 의해 중국 대륙이 통일됨으로써 막을 내렸지만 반면에 고구려에 있어서 중국내 통일 제국의 출현은 동아시아에서 패권다툼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정

48)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年 秋9月.

세는 수라를 통일제국을 사이에 두고 북방의 돌궐과 동방의 고구려가 서로 긴박하게 움직이며 전개되었다.

5. 맺음말

西晉 말기의 혼란을 틈타 북방의 이민족들이 대거 중국 대륙에 진출하면서 중국은 혼란에 빠졌고 역사상 5호 16국 시대가 개시되었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이민족 중 하나가 선비족 모용부였다. 모용부는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前燕을 세우고 고구려와 대치하였다.

고구려는 중국이 혼란에 빠져 주변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지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반도에 있던 중국세력을 몰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반도 중부지역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고구려의 대외팽창은 이웃한 전연을 긴장시켰다.

전연의 국가발전의 목표는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방의 위협세력인 고구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결국 전연은 고구려에 대해 대대적인 침입을 감행하였고, 이에 맞서 고구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전략상의 실패로 수도가 함락됨으로서 패배를 당하였다.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틈타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후 전연은 중국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한 때 북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前秦에게 멸망하였다. 고구려와 전진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내부 정비에 힘을 쏟았다. 소수림왕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체제정비로 고구려는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진이 東晉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세력이 약화되자 북중국을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 기회를 이용해 後燕이 세워졌다. 후연은 北魏세력에 밀려 전연의 근거지였던 요서지역으로 밀려났다가 내부 반란으로 인해 모용부 왕실이 멸망하고 北燕이 세워졌다. 이처럼 중국이 여러 정치세력으로 분열되어 다시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대외팽창 정책을 추구하였다. 광개토태왕 대의 활발한 정복전쟁은 고구려가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서막이었다.

고구려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던 사이 중국 대륙에서는 북위에 의해 북중국이 통일되어 남쪽의 宋과 대치하면서 남북조시대를 맞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웃한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북방의 柔然과 연대하는 대외정책을 택하였다. 또 남조 정권과도 적절히 교류하며 남북조 사이에서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다. 5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중국의 남북조를 중심축으로, 동쪽의 고구려와 북쪽의 유연이 대치하여 형성된 4강 체제 속에서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4강 체제의 성립으로 힘의 균형상태를 이루자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실시하였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어 백제의 수도 한산(한성)을 함락시켜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고구려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동몽고의 시라무렌하 유역부터 한반도 중부지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외부로부터 큰 위협이 없어 장기간 평화를 누렸다.

그후 6세기에 들어와 북위는 동서로 분열되었고 다시 북주와 북제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 즈음 고구려에서도 지배층의 권력쟁탈전으로 인해 내부 정세가 불안해졌고 그 결과 나제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

한편 북방에서는 유연을 대신해 돌궐이 초원의 강자로 부상하여 동아시아 세력판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는 6세기 말 隋에 의해 중국 대륙이 통일됨으로서 막을 내렸지만 통일제국의 등

장은 고구려에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다툼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원고투고일 : 2005. 3. 4,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고구려, 전연, 북위, 남북조, 유연

KCS I

<ABSTRACT>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East Asia between 4th and 6th Centuries and the Foreign Policies of *Koguryo*

Kang, Sun

As Northern barbarians intruded into China at the end of the Western *Jin*, it caused China to fall into chaos and the so-called period of the Five Barbarians and Sixteen Kingdoms started. One of the most noticeable barbarians around this time was *Murong Xianbei* tribe. *Koguryo*, on the other hand, successfully drove out Chinese commanderies from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chance of the tumultous time in China. *Koguryo's* territorial expansion brought a tension to the neighboring kingdom, the Former *Yan*.

One of the ultimate state goal of the Former *Yan* was to advance to the Central Plain reg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ormer *Yan* had to deal with *Koguryo* first who could be a potential threat in the future. The military attack of Former *Yan* against *Koguryo* succeeded partly due to the failure of *Koguryo's* Defense Strategy. In the meanwhile, *Baekje*, who took advantage of this situation, intruded into *Koguryo* and made King *Gogukwon* die in battle.

Then, by a territorial expansion to the Chinese territory, the Former *Yan* developed into the most powerful kingdom in North China. However, it was soon destroyed by Former *Qin*. Between the Former *Qin* and *Koguryo*, there was a peaceful relation, and it helped *Koguryo* to regain the internal stability and to develop its state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Sosurim*.

Meanwhile, Northern China fell into trouble again as several kingdoms such as the Former *Qin*, Later *Yan*, and, Northern *Yan* keep establishing and perishing with a short time interval.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Koguryo* could pursue external expansion policy.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began as Northern *Wei* united China. *Koguryo* chose an amicable relation with Rouran so as to constraint the neighboring Northern *Wei*. The four powerful states including *Koguryo*, *Rouran*, Northern Dynasties, and Southern Dynasties became to form the major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n East Asian around the mid of the fifth century. By this time, *Koguryo*, who satisfied by the power balance between those four states, started to expand southward to the Korean Peninsula.

King *Jangsu* moved a capital to *Pyeongyang* and conquered *Hanseong*, *Baekje*'s capital, expanding *Koguryo*'s power to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 By this time, *Koguryo* emerged as the most powerful state in East Asia with a large territory from the Eastern Mongolia to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

Later, the Northern *Wei* was divided into the Eastern and the Western *Wei*. Until the *Sui* unified China, *Koguryo* enjoyed a peaceful period for a while. However, *Koguryo* showed internal trouble due to power struggle among the ruling classes, and it resulted in the loss of the *Han* River region to the allied force of *Silla* and *Baekje*.

Key Words : *Koguryo*, Former *Yan*, Northern *Wei*,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Rouran*